

## “신(神)은 죽었다”



교황 프란치스코 사진 : http://w2.vatican.va

###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 역사적 미국 방문 그의 행보 속에 진정한 복음증거 사랑은 있었다

여정을 마쳤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언급했다. 인류의 선 증진과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했다. 자신도 한 때는 이민자였다면서 이민자들에게 관용 베풀 것을 주문했다. 시리아 난민들을 품으라고 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했고,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섰다. 분쟁과 갈등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기후변화와 관련, 환경문제도 언급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생명 존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낮은 자와의 눈높이로 항상 과거 행보를 해 오고 있는 그를 향한 미국인들의 환호 또한 실로 대단했다.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교황의 연설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더니 결국 10월 말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미국내 복음주의의 진보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교황의 방문은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행보 속에 정작 있어야 할 진리의 '예수' 생명양식은 묻어 있었는가? 그는 복음을 담대히 외쳤었던가? 진정한 사랑은 구제와 선에 이전에 복음 증거의 사랑 행위가 반드시 앞서야 한다. 또 다른 종교개혁을 원치 않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유일신임을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한다.

이영민 기자

### LA통곡기도대회

10월 4일(주일) 오후 4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그날까지선교연합이 4일(주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LA통곡기도대회'를 연다.

지난 5월 13일 달라스를 시작으로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워싱턴 DC, 덴버 등에서 연이어 열렸던 LA 통곡기도대회는, LA 지역에서의 집회를 마지막으로 올 해의 기도대회 대장정의 마무리를 짓게 된다.

이 통곡기도대회는 10년 전부터 북한 구원을 위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열려 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 정치계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이번 기도대회에서는 6명의 탈북자들이 간증한다. 이 중에는 북한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있어 큰 도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주님의영광교회(333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5)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지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22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 교황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대면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에는 워싱턴 중앙 잔디광장인 내셔널 몰에서 시가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을 만났고, 24일에는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25일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26-27일에는 마지막 방문지인 필라델피아를 끝으로, 5박 6일간의 짧지만 긴 미국방문

시절 몰에서 시가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을 만났고, 24일에는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25일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26-27일에는 마지막 방문지인 필라델피아를 끝으로, 5박 6일간의 짧지만 긴 미국방문



제4대미주복음방송 사장으로 취임하는 임덕순 장로가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이사장 김영일 목사) 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9월 25일 오전 11시 엘에이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려 3대 사장이었던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이임하고 4대 사장으로 임덕순 장로(감사한인교회)가 취임했다.

###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3대 사장 송정명 목사 이임/4대 사장 임덕순 장로 취임

로 임덕순 장로(감사한인교회)가 취임했다.

이날 미주복음방송 이사(이하 이사)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이사 민종기 목사(중현선교교회) 기도, 권영대 목사 특별찬양, 박희민 목사 설교(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 이임패 증정, 송정명 목사의 이임인사, 김영일 목사(전 이사장, 감사한인교회)에게 감사패 수여, 임직패 증정, 이동원 목사(영성, 지구촌교회)와 이사 한기형 목사(나성동산교회) 축사, 임종희 목사(미주복음방송 설립자 및 초대 사장) 격려사, 장성규 형제 특별 연주, 임덕순 사장 취임사,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광고 등의 순서로 진행된 후 다함께 찬송가 323장(부름받아 나

선 이품)을 부른 후 이사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의 축도를 끝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이날 박희민 목사는 담후4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이민 1세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독교문화를 펼쳐나가며 미주류사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을 주는 복음방송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정명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방송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방송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온 간증들이 많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갑자기”

#### 사생활 보호 PPPA 서명 운동 중



(사진: Coolcaesar at English Wikipedia / CC /) REI

건이 일어나 주의가 요청된다. 태평양양법률협회(PJI)는 최근 북가주 산타로사의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용품 판매점인 REI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8월 24일 12세, 10세 소녀가 REI 매장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중 어떤 남성이 이 여성 화장실로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소녀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12세 소녀의 어머니가 매장에 항의했지만 매니저는 “우리는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오히려 매장을 떠나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 피드몬트 대학교 학생모집

피드몬트 대학교는 글로벌 지식정보시대에 기독교 인재양성목적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규종합대학교입니다. 피드몬트 대학교는 정규 종합대학교로서 학문은 **통진, 통합, 통섭의 융합학문(Consilience, 'A jumping together knowledge')**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THINK**  
생각하라

**ANALYZE**  
분석하라

**CREATE**  
창조하라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

**FAITH**  
신앙

**SCIENCE**  
과학

이사장 Dr. Casey Kim, Ph.D.  
 총장 Dr. William Stinde, Ph.D.  
 부총장 Dr. Ronald Vandermeij, Th.D.  
 Chancellor Dr. Paul Kang, Th.D., Ph.D.

PU 학과별 학사, 석사, 박사 학생 모집(00명)	
PU 한의과대학	PU신학 대학
PU 보육대학	PU음악 대학
PU 선교대학	PU ESL
PU 교육대학	PU ACL

www.piedmontuniversity.com

**Piedmont University**  
 1 캠퍼스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0  
 Tel: (323) 777-5269, Fax: (323) 777-3681  
 Email: Registrar@piedmontuniversity.com, admissions@piedmontuniversity.com

2 캠퍼스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 257-8176, Fax: (424) 257-8136



###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사장 임덕순 장로...남은 인생 다 바쳐 섬길 터

[1면으로부터 계속]이를 위해 수고할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복음방송의 주인은 위로는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모든 교회 및 성도들이 주인이다. 순수하게 섬겨준 한 분 한 분께 감사한다"고 했다. 또 "섬기는 동안 나 개인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신실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경영마인드가 탁월한 헌신이 준비된 임덕순 장로가 후임 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쁘다"고 했다.

임덕순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 하겠다. 사장이 아닌 파송된 선교사의 자세로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이 시대의 가치관 혼돈 속에서 '예수'만을 위한 3G(Global, Great, Gospel)가 되게 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다"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진부한 전통과 장애물은 모두 제거하겠다.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도 신개념



(앞줄 왼쪽으로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미주복음방송 사장 및 이사진)김영길 목사, 임종희 목사, 송정명 목사, 임덕순 사장, 김영일 이사장, 진유철 목사, 한기형 목사, 이종용 목사, 고승희 목사

의 재정총족 방향도 모색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임 사장은 취임사를 전하며 '남은 인생 다 바쳐'라는 말을

거듭 반복할 정도로 4대 사장 취임에 대한 본인의 남다른 각오와 '준비된' 헌신의 자세를 피력했다.

한편, 임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미주복음방송 사장 직무에 들어갔다. 이영민 기자

### “아가페교회의 위력은 아가페 사랑”

세계아가페선교교회 창립 39주년 감사예배 드려



세계아가페선교교회 김요한 담임목사가 창립39주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계아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 창립 39주년 감사예배가 9월 27일(주일) 오후 3시 이 교회 새생전 본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다.

이날 감사예배는 외부 초청없이 이 교회 출석성도들만이 함께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됐다. 김요한 목사는 '아가페교회의 위력'(행2:41-47, 마16:13-19) 제목

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능력은 웅장한 건물이나 권력, 물질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아 주는 것이다. 나는 39년 동안 참아 왔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며 "사랑은 행동이고 온유하며 믿어주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다"고도 하며 아가페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아가페의 삶으로 이어지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설교가 끝난 후에는 김반석 부부의 불가리아 선교사 파송식 및 오용주 전도사 임명식도 함께 가졌다. 문의는 세계아가페선교교회(933 S. Lake St., LA, CA90006) 전화 213-368-7999으로 하면 된다. 이영민 기자

### “전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13년간 420명 전도한 김인태 집사



전도왕 김인태 집사(나성순복음교회)가 사랑한인교회에서 간증하고 있다.

“전도,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13년째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전도왕 김인태 집사가 9월 25일 저녁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 전도 간증집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2002년 이민 온 후, 그가 전도한 사람은 현재까지 약 420명. 그의 전도 비결은 무엇일까?

김 집사는 “지금 당장 서원기도부터 시작하고 가까이 있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 그리고 손해를 입어도 덕을 베풀라”고 말했다. 또 “바로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말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니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아내와 결혼 후 6개월도 안 돼 핍박을 시작했다. 열기가 왕성하고 급해, 아내를 때리기도 했고 큰 상처를 입힌 적도 있었다.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맡아 피우기도 했다.

그런 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오는 날에도 아내는 어김없이 새벽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아내의 기도 덕분인지 그는 수렁에서 건져내시

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루는 기도원에 가지는 아내의 간곡한 애원을 뿌리치고 겨울 낚시를 하러 갔죠. 그런데 그만 얼음이 깨져 호수에 빠져 버리고 말았어요. 살겠다고 허우적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얼음은 연신 부서져 나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불과 0.1초 사이에 여태껏 지나온 38년 인생이 형광등처럼 '번쩍' 하고 지나갔다. '죽는다' 생각하니 아내에게 제일 미안했다. 성경책을 7번 찢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일이 섬광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이전에 저 때문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다.

그는 누군가 영당을 밀어내듯 물밖으로 나왔다. 물밖으로 나온 그는 무릎을 꿇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염없이 울면서 옆드려 통곡기도를 드렸다. 은혜를 체험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영혼 구원의 열정에 사로잡혀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전도자로 바뀐 것이다.

김 집사는 이날 참석한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선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개최한 사랑한인교회는 9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해피데이 전도축제 기간으로 정해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있다.

김인태 집사의 간증집회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본사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는 213-739-0403이다.

이인규 기자

### “예장 국제총회 목사 안수식...11명 임직”



예장 국제총회 목사 안수식이 9월 24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이서목 목사) 국제총회가 11명을 목사로 안수했다. 이 교단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남가주 무리예타에 있는 갈보리채플 컨퍼런스 센터에서 총회를 열었으며 총회 일정을 마친

후, 은혜한인교회로 이동해 24일 저녁 목사안수식을 거행했다.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의 기도로 시작한 안수식은 총회장 이서목 목사(미주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마28: 16-19) 제목의 설

교를 전했다. 김광신 목사(GMI 총재)가 권면,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축사하고 안동주 목사(생수의강선교교회)가 축도했다.

이날 11명에게 목사안수식을 거행했다. 문소현 기자

##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2015년 예수님의 기도학교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백—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리더를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영적리더가 되십시오

#### 일자

2015년 11월 9일(월 저녁)~13일(금 오전)

#### 강사

크리스 해리스 목사 \_ 깊은 기도와 말씀사역의 내적치유 강사  
이영환 목사 \_ 기도와 전도로 부흥하는 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고승희 목사 \_ 중보기도로 가정을 회복하는 LA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 “나의 기도의 삶” 특강

영희 맥도널드 목사 \_ 예수님과 동행하는 덴버 교도소 채플린  
박신일 목사 \_ 기도로 꿈을 이루어가는 목회자(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박현승 목사 \_ 금식과 철야로 영적설교를 하는 목회자(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성현경 목사 \_ 기도로 시대를 보는 목회자(뉴저지 가스펠헬로십교회)

#### 장소/ 밴쿠버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12969 Crescent Road, Surrey, BC V4P1J8 Canada  
밴쿠버 도착: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YVR)

#### 등록문의

admin.ictc@gmail.com  
Katalk/ prayforspain

**ictc**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후원 : 기독교일보



### ■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개원예배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대표 주해홍 목사) 개원예배가 지난 26일 애나하임 소재 사역원 사무실에서 성황리에 열려 세계를 가슴에 품고 펼치는 말씀읽기 운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주해홍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1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들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펼치는 이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와 동참을 부탁했다. 주 목사는 “사역원이 출범한 것은 2009년이었으나 오랜 준비 끝에 이제야 개원식을 갖게 됐다. 장차 여러 나라의 빌보드에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라는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를 붙이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리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개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주해홍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날마다 말씀 더 가까이...통독사역 본격 시동

###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개원예배 100여명 참석 성황 "전 세계 빌보드에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붙일 것"

그에 따르면 종말론적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구별된 삶이라는 3가지 관점을 갖고 신구약을 줄거리를 따라 통전적으로 읽도록 가르치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은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단기 및 집중강의를 50여 차례, 16주 전체 과정을 10여 차례 실시했다. 또 성경통독을 미주장신대에서 정규과목으로 강의 중이며 인도 아시아신학대학에서 현지인 특강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캄보디아, 터키, 멕시코, 러시아 현지 선교사를 대상으로 집중훈련을 하는가 하면 통근 통독, 통근 성경(연대기), 인도자 지침서 등 출판물을 냈다. 이중 통큰 통독은 이미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옮겨져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터키어, 미얀마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방송사역과 장학사역(인도 현지인 신학생 20명에게 매년 전액 장학금 지급)을 펼치고, 가슴으로 깨달은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국 내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공익사업도 벌이고 있다.

현재 사역원은 부설 에스라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목회자 포럼, 16주 과정 일독학교, 주제별 성경공부, 청년대학생 성경교실, 예수 깊은 탐구 등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주 목사가 사역목사로 있는 ANC은누리교회의 유진소 담임목사는 ‘말씀 사경회’(느헤미야 8:8-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역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전했다.

유 목사는 “이 본문은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수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준 이야기로 말씀 사경회의 원조”라며 “한국의 신앙 선조들이 즐겼던 것이 바로 사경회였다. 부흥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뒤에 나온 컨셉이고 조금 다른 것이다. 원래 오리지널은 사경회였다”고 말했다.

또 “성령사역 중심, 은사 중심의 부흥회 이전에 사경회가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겠다, 불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소박하고 단순한 마음에서 모였다. 그것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시간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나누고 그 속에서 은혜 받겠다라는 것이었다. 그 사경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역원이 에스라와 우리 선조들의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아 본질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사역을 감당해 달라”면서 “느헤미야 당시 특별 찬양이나 워십 댄스나 동영상 상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냥 모두 모여 말씀을 읽었는데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말씀 자체의 파워로 인한 것이다. 에스라 성경사역원이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미국에 오기 전 양재 두란노서원에서 행복하게 말씀을 가르쳤던 기억이 난다”는 유 목사는 “말씀사역에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진리의 깨달음, 영적인 생명 에너지의 공급, 기쁨과 행복의 누림 등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을 지키며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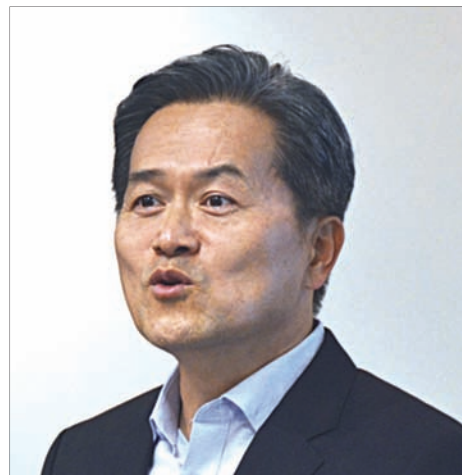
박총기 목사(엘피스장로교회 담임)는 권면에서 “미주장신대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는 주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시다. 하지만 인간 회복,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게 되는 일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동 목사(OC교회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 주해홍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총기 목사가 권면을 하고 있다.



유진소 목사가 사경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사역을 해 줄 것을 바라는 설교를 하고 있다.



김기동 목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회장)는 격려사에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역원은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기관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날 사회는 박용일 목사, 찬양 인도는 강애라 목사, 기도는 광재필 목사(OC목사회 회장)가 각각 맡았다. 문의: www.EzraBibleReading.com, 714-713-8833

김정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 “선한목자교회 건물 포기 이전에 96% 찬성”

## 10월 4일 이전 감사예배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가 현 로랜하이츠 건물을 떠나 치노힐스로 이전한다. 로랜하이츠 건물은 PCUSA 잔류를 원하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한목자장로교회(당회장 이동우 목사)가 사용한다.

선한목자교회는 지난 9월 20일 공동의회를 열고 “건물을 포기하고 치노힐스로 이전한다”는 안건에 찬성 609명, 반대 18명, 무효 5명 등 96.4%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선한목자교회의 새 예배당 주소는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이며 이 장소에서 10월 4일부터 주일예배를 오전 8시, 9시



선한목자교회가 10월 4일부터 치노힐스로 이전해 예배 드린다. 치노힐스 교회 건물 모습.

30분, 11시, 오후 1시에 드린다. 이중 9시 30분은 영어권 예배, 1시는 한국어 청년예배다.

한편, 이 교회는 10월 9일부터 11

일까지 림현천 목사(잠실교회)를 초청해 창립 40주년 기념부흥회를 열고 18일에는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갑자기”

## 10대 소녀 어머니 항의에 적반하장 사생활 보호 PPPA 서명 운동 중

[1면으로부터 계속]졸지에 성소수자 차별주의자로 매도된 그 가족은 주차장을 벗어날 때까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외설적인 야유를 받아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PJI는 해당 매장과 워싱턴 주 REI 본사에 서한을 보내 이모녀에 대한 매장 측의 처우에 관해 묻는 한편, REI가 고객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취할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PJI의 대표 브래드 대쿠스 변호사는 “매장 혹은 다른 공공시설에서 고객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 경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REI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적 정당성이 어린 소녀들을 위협에 밀어 넣고 있다”고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은 주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으로 인해 공립학교의 경우는 남녀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추세가 곧 정부 소유의 빌딩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종교자유 전문 법률단체 PJI와 보수단체 프라이버시 포 올(Privacy For All) 등은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의 효력을 원천봉쇄하고 공립학교의 화장실의 공용을 저지할 새로운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고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생활 보호법(PPPA,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은 공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정부 소유지 내에서 사람들이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다른 성별의 사람과 함께 사용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등의 혼용을 금지해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단, 성 변경을 위해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 성 변경을 위한 청원을 낸 경우 ‘변경 중’, 혹은 ‘변경된’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아닌 트랜스섹스(trans-sex)의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투표에 상정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서명 수 36만5,880개가 채워져야 한다. 주민투표에 어떤 사안을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 수는 바로 직전에 이뤄진 주지사 투표자 수의 5%로 정해진다. 2014년 선거 기준 36만 5,880명의 서명이 주민투표 상정 가능 수치다. 프라이버시 포 올은 현재 여러 단체, 교회와 연합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한인들은 TVNEXT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 www.tvnext.org에서 서명 용지를 배부하며 관련 안내를 하고 있고, 서명 운동 캠페인 센터로 섬길 교회와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 9월 22일 첫 학기 개강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이 2015년 가을학기를 지난 9월 22일 나눔과섬김의교회에서 개강했다.

이 학교는 지난 8월 18일 창립된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CGMA, General Assembly of Christian Gospel Mission Alliance) 소속 신학교로 이번이 첫 학기다. 학사부터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졸업하면 CGMA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 학교는 이미 LA 한인타운 인



근 베니스 길과 버몬트 길이 만나는 곳(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90006)에 건물을 매입했으나 리모델링이 완료되지 않아

나눔과섬김의교회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학기에 총 17명의 신입생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 청년들 “그리스도 안의 한 몸 이루어 부흥” 제33회 청년연합집회 HYM,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HYM 더글러스 김 대표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한어권 청년연합집회 HYM이 남가주사랑의교회 킹덤드림센터에서 제33회 집회를 열었다. 주제는 “One Body in Christ(그리스도 안의 한 몸, 엡4:1-16)”으로 26일 저녁에는 김성한 목사(가디나장로교회), 27일에는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각각 강사로 섰다. 27일 저녁 집회에 앞서서는 국제커피브레이크 백은실 대표의 특별 세미나도 열렸다. 한편, HYM은 남가주 청년의 부흥을 꿈꾸며 시작된 1.5세 기도 운동으로 매년 2차례 연합집회를 열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은혜한인교회 세계기도센터에서 화요 정기 기도 모임을 한다. 문소현 기자

# 아가페선교훈련학교 학생모집

일정: 10월 3일-12월 5일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7시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 교육관 203호  
대상: 예수의 제자로 삶을 드리길 원하는 자, 전문인 선교사 지망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각 교회 선교위원들  
강사: 김요한 목사, 박문환 목사 외  
등록: 선착순 정원제 25명  
등록비: 200불(교재 및 간식, 분납 가능)  
특전: 1. 초급 이수자는 중급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2. 아가페크리스천 대학에서 3학점 인정받음. 3. 선교사 지원시 훈련 증명 평가에 따른 파송가능  
문의 및 상담: 박문환 목사(이메일: hwan323@gmail.com, 909-438-8345)/ 최규 장로(323-595-7039)



영락 사랑 베델 은혜 교역자들 운동으로 친목 다져 9월 14일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베델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의 교역자들이 나성영락교회 체육관에서 운동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교단과 지역의 장벽을 넘었다.



# 이희숙 목사 출판감사예배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이희숙 목사 사모사역 40년 회고 및 출판감사의 밤이 9월 26일 오후 8시에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계복음선교회(대표 이병희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 이영인 기자

이희숙 목사는 이병희 목사 사모이다. 이 책은 이 목사가 그동안 사모로서의 역할을 통한 실제적이면서도 진솔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영 목사는 서평을 통해 “사모 바이블로 불려도 손색이 전혀 없을 것이다. 후배 사모들은 꼭 읽어 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해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opmediausa.com  
junimedia.com

## 미디어선교사역의 동반자 탐 미디어

### 달력 (Calendar)

min. order 100개  
Custom 달력도 제작해 드립니다.(가족 및 단체사진)

### 전도 및 새가족 선물

전도용 물티슈, 전도엽서, 맞춤형 전도지

### 각종배너 (스텐드형배너)

### 음악회 패키지

초대권, 포스터, Flyer, 현수막, 순서지(Program), 디자인, 시디앨범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 캔버스(가족 및 단체사진)

### 창립기념 수건 및 행사용 기념품 및 상패

###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쇄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Tel: 323.265.0244 E-mail: info@topmediausa.com



# 선교의 기반

학개 2:1-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배은망덕하여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고 미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장래를 깊이 염려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며 여러 모양으로 권면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하심으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역사를 엮어 가셔야겠다는 가슴 아픈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기드론 골짜기에는 시체가 쌓였으며, 여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통하여 공동여 짓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버리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태도를 보였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었으며, 그곳의 기물은 모두 바벨론으로 쫓겨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인연이 근본적으로 끝난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해오는 세대의 이스라엘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형벌아래 징계할 것이며, 다음세대의 남은 자들 중에서 신앙으로 회복해서 인연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펼쳐갈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 2.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옴

이렇게 7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차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생겨난 비극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회개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연합군으로 하여금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으로 함께했던 메대와 바사가 다시 싸움으로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시키고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를 향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학대받는 실정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셨고 그가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와 나의 기쁨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사 45:1) 이것은 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시대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사나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년간 바벨론에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 비참했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왕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시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찌니라”(스 1:2-4)고 공포(公布)하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의 처지가 막막하고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예정하신 섭리가 남아있는 한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세계 역사를 바꿔서라도 모든 주변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3. 하나님께서 기대거실만한 모범적인 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와 전을 건축코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스 1:5-6)했던 첫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공사만 해놓고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학 1:2)고 하면서 자신들이 거처할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학개 1장 4-1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도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유하며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 중에 예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 성전에 드나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학 2:3)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겠으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짓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성전 짓는 일을 감당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학 2:8)하신 말씀처럼, 성전이 준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건은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거처하실 곳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행 7:49)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 조건으로 보살피시고, 축복하시며,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학 2:6-7)고 하십니다. 이것은 “만국의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묵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전의 주인공이 될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버려야 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변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아 배은망덕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골적인 배신자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소화(燒火)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재건될 성전은 기나긴 포로생활 중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을 두고, 그 시대의 세계적인 역사를 영적인 기준으로 엮어 가시기 위한 엄청난 비전이 설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선교의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현세에도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선교의 본거지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헤어 칼라 전문점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8:00 PM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목사안수나 편목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청지기목회자학교에서는 PCA, CRC, PCUSA, RCA, ECA, SBC 등 미국내 교단 안수 신청과 편목 서류를 도와 드리고 아울러 영어 인터뷰 때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한 영어구사 표현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1. 미국교단 안수 및 편목 지원방법과 관련서류 작성법 강의
2. 미군군목(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지원서류 접수대행 및 인터뷰 과정 강의
3. 병원 원목(CPE) 프로그램 강의
4. 교회설립과 주 정부 등록 그리고 비영리 등록 강의
5. 교회 개척에 필요한 "One Stop Planting" 강의
6. 선교 가시는 분들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강의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 그리고 목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 상담이나 예약방문을 권합니다

**가을 강의 10월 19~21일**

**USCRC Pastoral Education(청지기목회자학교)**

Tel(310)502-9999  
2850 Ocean blvd #200, Santa Monica, CA 90405

## 결혼제도의 급변과 생명의 절대 가치

미주한인들에게 2015년은 인류 문명에 대지진이 일어난 해로 기억될 만하다. 모국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제도가 합법화되었다. 전통적 가치 위에서 정숙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이동풍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제도는 물론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사건이다. 결혼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혼율의 증가는 이제 화제도 아니다. 독신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간다. 법적 책임이 없는 동거생활이 유행병처럼 번진다. 도시마다 독신 거주자가 가정 거주자보다 더 많아진다. 게다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또 하나의 '빅 윈' 지진을 겪고 있다. 앞으로 복수결혼조차도 막을 길이 없다.

이처럼 결혼제도의 근본 틀이 바뀌어 가는 배경에는 인권 보장과 자유의 확대라는 사상이 버티고 있다. 색성(sex)은 타고난 것이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 곧 자유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색성행위의 대상이 자신이건 남이건, 하나뿐이건 여럿이건, 같은 색성이건 다른 색성이건 그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법은 그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항변이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하여 모든 '절대적 진리'의 무효화, 금기사항들의 폐기처분 결과였다.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기독교 문명권에서 가장 엄격한 금기가 되어 왔다. 반면에 고대 희랍이나 남태평양 문명권에서는 동성애가 장려되어 왔다. 이슬람과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드러운 금기 수준이고 선비



이정운 목사  
미주성결대 명예총장

의 나라 한국에도 남색, 여색, 비역질, 배대질 등의 말이 국어사전에 있다. 이런 까닭으로 범 기독교 문명권이 동성애자들의 집중적 포화를 맞고 있다. 그들은, 성경에는 동성애를 정죄한 근거가 없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도 동성애자였다는 억지논리를 편다.

분명히 선언하지만 동성결혼이나 간통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무거운 범죄행위이다. 그래서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며 감옥을 선택한 켄터키 주 킴 데이비스 시 기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교회 재산을 몰수당하는 물적 피해 앞에서도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응원 기도를 보낸다.

이런 글을 쓰면 투옥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도 개의할 것 없다. "모든 미주한인교회들이 '동성결혼 반대주일'을 정합시다. 그리고 '동성결혼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설교합시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미국의 감옥이 목사들로 가득 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뭇 후련하실 것입니다." 글쓴이는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

다. 그런데 이같은 결혼제도의 혁명을 '생명의 절대 가치'라는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지자들도 반대자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다. 히틀러가 동성애자들을 유대인처럼 죽임 수용소에 가두고 처형했던 것이 기독교가 묵시적으로 동조했던 것도 생명의 절대가치를 외면한 범죄였다. 성경적 범죄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범죄자들은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 우주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들이고 주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에 간음한 자'까지 모두 죽인다면 이 지구 위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따라서 교회는 동성결혼이나 간통이 영적 범죄라는 걸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그 가담자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기독교 신자들도 실상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동성결혼자들과 간통 범죄자들에게도 권한다. 자신들의 인권을 확보하고 자유의 폭을 넓히려는 투쟁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데 만약 온 인류가 동성결혼자가 되고 온 세계가 간통을 즐기는 사회가 된다면 인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인류의 장래가 있기는 있을까? 150년 못 가서 지구 위에서 사람의 씨가 마를 것을 염려 안 해도 될까? 당신들의 자녀가 동성결혼자가 되고, 간통의 악습을 즐기는 자가 된다면 기뻐 춤 출 수 있을까?

동성결혼자들은 아기를 안 낳거나 잘못 양육하는 것도 '간접살인'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생각 다이어트



정우성 목사  
남주주광염교회

우리는 하루에도 수 만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 그 생각들 중에는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생각은 자유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남이 못하게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한 대로 모두 살 수는 없듯이 잘 정리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 다이어트'라 부르고 싶다. 그 이유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결과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뜻이다.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나눌 수 있다. 성경은 사람에게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롬8:13)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

행동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간순간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내야 한다.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스리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순간순간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생각의 결정권을 성령님께 드려야 한다.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주실 때마다 즉각 순종해야 한다. 신앙은 삶이다. 일년을 하루같이 매 순간 순종해야만 작은 열매라도 거둘 수 있는 성숙한 인생이 될 것이다.

결실의 계절, 버려지는 설익은 과일보다 단맛나는 인생이 된다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한천영 목사  
갈릴리산교회

세상에 혼자 못하는 것 중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결혼이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혼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사람들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다. 신데렐라를 보고 한 눈에 반한 왕자가, 그가 남기고 간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아서, 결국 신데렐라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둘이 결혼한다는 이야기이다. 우스게 소리지만, 과연 결혼 후에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을까? 계모와 언니들에게 받은 구박과 설움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신데렐라가, 두 집안 간의 엄청난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나머지는 상상에 맡긴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 일 없는데, 제 발로 교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름대로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교회에 와서

일도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피하고 싶을 때도 많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알고 보니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다.

최근 가정에 관한 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결혼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곳으로 여행가고, 더 여유롭게 살 것으로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것이다. 대신에 결혼해서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결혼은 선물이요 축복이 될 것이다.'

결혼과 신앙생활은 원리가 같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 그렇다...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다.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자  
디아스포라여 복음의 동진을 일으키자

2015

# KINGDOM

# DREAM

# CONCERT

## 킹덤드림 콘서트

**SPEAKER** : 천 관 응 목사 (한국 뉴스운드 교회)

**WORSHIP** : NEW GENERATION WORSHIP TEAM

킹드  
LAS VEGAS

일시 : 10월 10일(SAT) 3PM  
장소 : Clark County Library Main Theater  
주소 : 1401 E. Flamingo Rd, Las Vegas, NV 89119

킹드  
LOS ANGELES




일시 : 10월 17일(SAT) 2PM  
장소 : Belasco Theater  
주소 : 1050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5

킹드  
SAN JOSE

일시 : 10월 24일(SAT) 6PM  
장소 : Jubilee Christian Center  
주소 : 175 Nortech Pkwy, San Jose, CA 95134

모든 집회는 무료로 입장합니다. / 좌석이 한정되어 선착순 입장입니다.  
단체 예약을 받습니다. / 집회를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310-905-2228(LA), 310-365-2748(LAS VEGAS), 408-761-7375(SAN JOSE)

   : kingdomdreamint / [www.kingdomdreamintl.com](http://www.kingdomdreamintl.com)

킹덤드림콘서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님의 손 되어 노숙인들의 눈물 닦아준다

예수님의 길은 '왕관을 피해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께 서 사랑으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 보리떡 다섯과 작은 물고기 둘로 오천 명을 넉넉히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그후의 일을 15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경의 가장 유명한 기적이 일어난 지 약 이천년이 지난 오늘날, 그 주님의 길을 삶으로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있어 많은 크리스천들을 부끄럽게 한다.

## 「저 낮은 곳을 향하여」(7)

### 산상보훈교회 이충남·방영자 부부목사

주일 아침 오렌지시 셰이퍼공원의 미팅룸에서 모이는 '노숙인들의 작은 천국'인 산상보훈교회의 이충남·방영자 부부목사다. 동갑내기인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14년째 이 사역에 애오라지 매달리고 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늦깎이로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58세에 함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만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깨달음이 동기가 되었지요. 그후로 집 없는 이웃들을 작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기사를 쓰시려는 건 아니지요? 신문에 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설득해 맥도널드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들 부부목사는 “보통 30~50명 정도가 모인다. 시정부에 1시간에 40달러의 사용료를 내고 방을 빌려 쓰고 있다. 장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몇 달치를 선불한다”고 교회를 소개했다.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예배에서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흐른다. 한국어로도 노래한다. 모이는 사람들의 신앙수준은 한인 크리스천들의 중간치보다도 높다. 사역의 가장 큰 보람이다. 교회 측은 예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햄버거, 치킨버거, 버리토 등을 커피와 함께 제공한다. 끝난 후에는 점심을 사먹을 수 있는 맥도널드 상품권을 나눠준다. 하지만 먹을 것만 주는 사역은 절대 하지 않는다.

“샌타에나 같은 곳에 가서 300명에게 빵을 획 뿌려 주고 오면 쉽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이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늘 그들에게 '여기는 영연한 교회다. 너희가 집이 없어서 햄버거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올 때도 꼭 밥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교회 가자고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바른 정체성을 심어준다. “너희들은 흠리스가 아니다. 저 천국에 집이 없는 사

오렌지시 공원에서 주일예배 14년째 집 없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두끼 양식 제공하고 희망 위로 담은 메시지 전파

젊은시절 평택서 농촌운동 미국으로 이민 온 후로는 스왑밋에서 상인들 섬기고 가난한 유학생 돕기에 진력

람들이 진짜 흠리스다. 손에 성경책을 들면 너희들은 모두 순회 전도자다”라는 말로.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부평초 신세이다 보니 여러 해를 함께 신앙생활하다 병으로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 부부목사는 노숙인들이 대부분 약삭스럼이 못하고 순수해 경쟁에서 밀린 언저리 인생이라고 믿기에 그들을 오롯이 예수 사랑으로 품는다.

“사워는커녕 손도 잘 씻지 않는 그들이 여름에 덥서 손을 잡으면 역한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지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 길에는 수백만 달러를 가져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니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선행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지요.”

한 때 큰 사업을 했다 실패하기도 한 이들은 집을 팔아 남은 에퀴티로 사역을 시작했다. 부인은 오래 전부터 거울을 보며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편까지 이발해 준다. 언론에 이름 내며 떠들썩하게 펼친 사역이 아니기에 후원자들도 손뼉을 정도다. 몇몇 친구, 후배, 고교동창, 한 대형교회 등이 도울 뿐이다. 다행히 자식 농사를 잘 지어 세 자녀들이 전제



노숙인들을 섬기는 산상보훈교회 이충남·방영자 부부목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는 사랑의 실천이다. 선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비의 절반 이상을 감당한다. 십자가를 집 같은 고생이 될 법한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격려나 응원은 별로 없다.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사람을 보며 시작한 일이 아니기에 실망도, 후회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이다.

이들이 목회자가 되면서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서울대 축산학과와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지만 이들은 평택에서 농촌운동을 벌였다. 교회를 세우고 가난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농부들에게는 농업과 축산업 기술을 지도했다. 1981년 도미, 스왑밋을 하던 시절에는 빵을 준비해 아침을 못 먹고 장사하러 나온 상인들과 나눴다. 1983~1988년 5년간은 플러신학교의 가난한 한인 유학생들을 힘든 줄 모르고 섬겼다. 유통기간 만료를 앞둔 빵과 과일, 채소를 도네이션 받아 배달해 주었다. 뒷좌석과 트렁크 가득 식료품을 싣고 다니다 자동차 스프링이 나가기도 했다.

그런 섬김과 나눔의 동심원이 계속 커져 이제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 노숙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양식과 옷과 잠자리가 있지 않느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이들 부부목사가 하는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겁 없이 예수를 팔아요. 장로, 권사라는 이들이 우리 사역을 보고 '저런 일은 뭐하러 하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진리를 날마다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목사부부를 만나는 내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늘 백성을 지으셨다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숨 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런 노랫말도 떠올랐다. 삶으로 바치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생각과 함께.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히스패닉 남성 하나가 들어와 땀이 달린 열쇠고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저는 듣지를 못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라고 적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정말인지는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선뜻 주머니에서 4달러를 꺼내 열쇠고리 두 개를 샀다. 하나는 기자에게 선물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체리와 죄인의 친구'였기에 환호하며 박수쳐 주는 사람 없어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가르침을 날마다 생활 중에 살아내며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노부부. 천국에 가면 이들은 성심 다해 보듬고 구원한 영혼들과 허다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주님께 받아 쓰리라.

후원 문의: 714-552-6222

김장섭 전문위원



오렌지시 셰이퍼공원에서 주일예배 시작을 기다리는 노숙인들. 자신들을 자식처럼 품어주는 이충남 목사 부부가 있어 이들은 외롭지 않다.

# 201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11213407-46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info@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중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징: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 “베를린 성시화대회”

김인중·소강석 목사 등 세계 100여 지도자 모여 선언문도 발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2015 베를린 국제 성시화대회’가 22~23일 독일 베를린비전교회(담임 김현배 목사)에서 한국과 미국, 유럽의 100여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시화와 통일은 우리의 사명’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낮에는 통일포럼과 ‘세계 성시화 지도자 전략회의’, 저녁에는 ‘성시화의 밤’, ‘통일의 밤’을 주제로 김인중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가 말씀을 전한 집회를 진행했다.

이상구 목사(프랑스 파리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사회로 열린 첫날 저녁 집회는 김인중 목사와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김현배 목사(유럽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이성우 목사(유럽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의 개회선언, 전용태 장로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 장로는 “전 교회가 복음을 전 도시에 전하는 성시화운동을 통해 유럽과 전세계에 복음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김현배 목사는 “오늘날 유럽이나 독일, 그리고 베를린의 영적·도덕적·

사회적인 상황이 성시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각각 전했다.

축사한 소강석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는 “동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못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바벨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과 나라를 세우셨다”며 “힘들더라도 성시화 운동에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

김인중 목사는 로마서 1장 16절~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내용은 ‘은혜로 구원’이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은혜로 인해 믿은 것이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23일 저녁에도 ‘성령의 능력(고전2:4-5)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참가자들은 이날 ‘성시화와 통일을 위한 베를린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진영 기자

##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재신임 투표 통과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가 지난 9월 20일(주일) 담임목사 재신임투표를 실시했다.

27일 교회 측은 주보를 통해 “등록 교우 총 12,7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투표 결과 교회가 정한 재신임 기준(투표자의 2/3)을 초과하여 득표하였기에 담임목사 재신임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본지와외의 통하에서 “구체적

인 득표 수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교우님들 중에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 교회 정관에 따라 매 7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일인 20일에는 별다른 행사 없이 이찬수 목사가 그대로 설교했다. 이대웅 기자



이찬수 목사

## 살롬나비 “추석, 추수감사절로 정착시키자”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추석을 민족의 추수감사절로 정착시키는 운동을 하자’는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추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은총에 감사하는 날”이라며 “서구의 현대문화가 전통문화를 폐기하고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

인들은 한민족의 일원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갖고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아름답게 세워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 “추석의 문화적인 요소는 수용하되 무속종교적인 요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혁시키자”며 “추석을 민족의 추수감사절로 정착시키는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 한기총, 다문화 사회 맞는 인프라 구축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9월 22일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왔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난민들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외국인 부부의 자녀들에 대한 국적취득 부분을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며 “한기총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 예장합신, 자발적 세금 납부 결의

예장 합신 제100회 총회에서 목회자 소득세 자진 납부를 결의했다.

참석한 총대들은 목회자 과세와 관련, 전임목회자가 받는 생활비에서 현금하는 액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세율에 준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단, 법적 의무가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이대위) 정관을 ‘총

회공천위원회 공천을 받은 자 9인과 총회 허락을 받은 전문위원 9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정치부와 이대위에 맡겨서 두 기관이 서로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총회는 또 교회·노회·지역별 이슬람 관련 특강 및 세미나를 활성화하여, 범교단적으로 이슬람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전종교 / 토요일-17와버먼트 크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를 배워, 이만가정을 세워, 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되라, 소망중에 기뻐하라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10-95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6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예배 오후 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나기도모임 수/토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령공부 오후 7:30 (화)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연합(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us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미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T.(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너핏 전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인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라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F.(818)549-9199/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김범수 치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읽기 대표 주해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760) 636-2675 / pspkmc.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310) 404-6219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310) 325-4025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 370-5500 / F.(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323) 254-4012 / gkpcchurch.com

**정영희** 담임목사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626) 793-0880 / F.(626) 793-6412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월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805) 483-7009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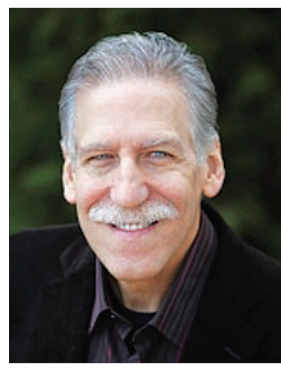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626) 795-6252 / F.(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당신은 동성애자로 태어났나요?”

나는 소아성애자로 태어났어요



마이클 브라운 박사  
©크리스천포스트

크리스천 포스트의 컬럼니스트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지난 9월 28일 “동성애 다음은 소아성애(남색인가?)”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 소아성애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고 우려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브라운 박사는 “최근 살롱닷컴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였는데, 소아성애는 왜 안 되는가? 다음은 소아성애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글은 “나는 소아성애자이지만, 괴물은 아니다”는 제목으로 토드 니커슨이라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니커슨은 “나도 정말 원치 않지만,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끌린다. 나를 비판하기에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니커슨은 또 ‘도덕적 소아성애(Virtuous Pedophiles)’라고 불리는 한 웹사이트를 소개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 단체의 목표가 다수의 소아성애자들은 아이들을 성추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소아성애자들에게 붙어 있는 딱지를 없애고, 소아성애자들이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원들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소아성애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브라운 박사는 “나는 지난 2011년부터 소아성애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도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이들은 ‘나는 소아성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어났으며 변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자신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동일한 논리를 가진 셈이다. 소아성애자들은 또 소아성애를 죄가 아니라 “세대 간 친밀감”이라고 표현하며, 때로는 이것이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며, 유익하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 박사는 “나는 일부 정신의학자들이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리스트에서 동성애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왔고, 소아성애도 여기에서 제거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면서 “이들은 소아성애가 어린이 학대가 아니며 정신질환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나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소아성애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아성애자들의 8가지 논리를 소개했다. 소아성애를 동성애로 바꾸면 동일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 1) 소아성애는 타고난 것이며 불변의 것이다: 소아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성애자로 태어났으며, 변화될 수 없다.
- 2) 소아성애는 인류 전체 역사와 다양

한 문화권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소아성애는 보편적이다.)

3) 성인과 어린이의 성관계가 해롭다는 주장은 과장됐으며 때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4)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지는 성인과 어린이의 성관계는 어린이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

5) 소아성애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아성애를 가졌다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6) 많은 동성애자들은 소아성애자들이기도 했다.

7) ‘세대 간 친밀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낡은 사회적 기준과 정교도적 성적 공포증에 사로잡힌 이들이다.

8) 이것은 사랑과 평등과 자유에 대한 문제다.

브라운 박사는 “이것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동성애자들이 정상인들에게 말하는 논리를 보자”고 소개했다.

1) 나의 동성애는 성적 성향이 아니라 성적 지향이다. 이성애가 성적 성향이 아니라 성적 지향인 것과 같다. (성적 성향은 후천적, 성적 지향은 선천적인 것이라는 의미)

2) 나의 동성애는 당신의 이성애처럼 정상적인 것이다.

3) 나의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것이고 증오다. 나의 동성행위를 불법이거나 부도덕한 것이라고 하거나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도덕적 옹졸함이다.

4) 나는 나의 동성애의 원인으로 내가 자란 가정의 양육방식과 환경을 지목하려는 시도에 깊이 불만을 표한다.

5) 나는 성적 지향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신화와 같은 말을 거부한다. 이는 동성애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시도는 우울증과 자살을 초래하기도 한다.

브라운 박사는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논리를 소아성애자들도 똑같이 사용한다”면서 “니커슨은 소아성애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에게 끌리는 자신들에 대해 동성애를 얻기 위해 호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동성애자들이 사용한 ‘이렇게 태어났다(선천적)’는 논리를 모두가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소아성애를 비롯해 모든 죄가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운 박사는 “이에 대해 동성애자들은 ‘우리는 단지 성인과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명한 동성애자들 중에 어린 시절에 당했던 성적 학대가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힌 이들도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는 끝으로 “우리는 동성애자라도, 소아성애자라도 태어나지 않았다”며 “동성애에만 ‘이렇게 태어났다’는 논리가 사용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도덕적 아노미를 막기 위해 동성애의 합법화가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자유와 동성애자 인권”

교황과 오바마...서로 상반된 의견 입장

프란치스코 교황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종교자유와 동성애자 인권과 관련해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9월 28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종교자유가 헌법적 권리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성소수자(LGBT) 관련 단체의 회원들에게 “우리는 종교자유와 종교적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종교 자유가 다른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 데이비스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인권이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 전문주간지인 내셔널 가톨릭 리포터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행기편으로 필라델피아에서 로마로 돌아가기에 앞서 김 데이비스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 데이비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지만,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권”이라고 말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교황은 또 데이비스에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황은 밤미 기간 중에는 성직자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동성애나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PCUSA, 장로교선교회 사무총장에 동성애자 임명

미국내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 동성애자를 임시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9월 23일 루이스 안토니오 데라로사(Luis Antonio De La Rosa)를 장로교선교회단체(Presbyterian Mission Agency, PMA)의 임시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장로교에 동성애 허용 캠페인을 해온 변호사 데라로사는 장로교 뉴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많은 이들을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지속해서 제한해 온 유리천장을 산산조각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내가 선정된 이 사건이 전통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개혁신앙의 교회가 참으로 개혁될 수 있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으며 버림받은 자를 환대하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존중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길 기도한다”고 했다.

데라로사가 이끌게 될 이 단체는 이에 앞서 갑작스럽게 선교담당 사무총장 로저 더모디 목사를 포함해 소속 직원들을 해고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6월, 더모디는 자신을 해고로 이끈 장로교선교회단체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는 더모디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PCUSA가 그 단체의 직원으로서 그가 비윤리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퍼트렸다”고 했다.

더모디는 PMA의 내부조사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4명의 직원 중 한명이었으며, 결국 자신의 직위를 사임했다. 그 후 6월, 오랫동안 이 단체를 섬긴 린다 발렌타인 사무총장은 자신의 직위를 사임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사임이 그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몇년 사이, PCUSA는 차츰 동성애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며,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의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동성애를 결혼에 대한 정의에 포함시켰다.

이달 초에는 켄터키 루이스빌에 있는 교단총회 본부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결혼식을 개최했다. 이러한 교단의 신학적 방향성에 반대하는 200개 이상의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PCUSA를 떠나기로 투표했다.

장로교 뉴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PCUSA 내의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데라로사는 자신의 이전 교회에서의 사역을 떠올리며 “아마도 어떤 점에서는 나의 섬김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을 이들이 나를 존경하며 정중히 대했다”고 했다.

데라로사는 “교회 내 사역에서, 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여준 것과 같은 존중과 예의로 나를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지하며,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영국성공회 수장, 자신의 거처에 난민 수용 뜻 밝혀

## 람베스궁 개방하고 주거비도 부담... 예수께서도 난민이셨다

영국성공회의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런던 람베스궁을 난민들을 위해 개방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9월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웰비 대주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난민들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전쟁과 박해를 떠나 온 난민이셨다”고 말했다.

그의 대변인은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웰비 대주교는 영국성공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난민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전쟁으로 파괴된 고향을 떠나와 쉼터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이 이곳에 있다. 웰비 대주교는 이에 마음 아파하며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상황을 바꾸길 원한다”고 말했다.

람베스궁에는 약 4개의 침실이 있으며, 한두 가정이 들어와 지낼 수 있다. 주거비는 웰비 대주교가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웰비 대주교를 비롯해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와 같은 박해감시단체들은 영국 정부의 망명 정책에 대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 ©유튜브 화면 캡처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내전과 테러를 피해 서방으로 오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니파 무슬림들로 이뤄진 난민 캠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2만 명의 난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기독교계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국제단체인 ‘글로벌전략연맹’(GSA)은 1,000곳 이상의 미국 교회에 박해받는 난민들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기도’ 때문에 수감됐던 라오스인, 병세 악화로 사망

라오스 사바나케트 주에 소재한 후에이(Huey) 마을의 한 기독교인이 감옥에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당국은 그에게 필요한 당뇨약도 금지시켰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통 받도록 방치했다고 한다.

티양 그랜티양통은 9달 전 아픈 여성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보스뉴스라이프에 의하면, ‘라오스 종교자유를 위한 인권감시단체(Human Rights Watcher for Lao Religious Freedom)’는 성명서에서 “티양 그랜티양통은 사바나케트 지역에 소재한 후에이 마을의 기독교인이다. 그는 지난 9월 17일 당뇨병이 매우 심해져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 61세의 티양은 심각한 당뇨를 앓아 왔으며, 꾸준히 약을 먹어야 했다. 그가 수감됐을 때 당뇨가 심해져 이에 따른 처방을 요청했으나, 교도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내와 6명의 자식들을 둔 그는 9개월 전 사바나케트에서 체포됐다. 그와 4명의 기독교인들은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한 여성에게 치유 기도를 요청받고, 그녀의 집에 방문해 기도를 해주었

다. 그러나 한 달 후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라오스의 기독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2%도 안 된다. 라오스에서는 공적인 기도를 포함해 모든 기독교적인 활동에 대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이같은 허가없이 기도할 경우, 종종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사바나케트 인민재판소는 티양과 4명의 기독교인들이 허가없이 의료적인 행위를 했으며, 이들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

라오스 종교자유를 위한 인권감시단체는 “라오스 정부와 사바나케트 주 교도관들은, 불법적으로 수감되고 심각한 당뇨병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한 티양의 죽음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15 박해국가지수’에 따르면, 라오스는 박해국가 순위 28위에 올라와 있다.

한편,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시아에서의 기독교인들 핍박 사례가 수없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강혜진 기자

## O.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형한문대학교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문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2444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인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성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리점, 3년제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일 4부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e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예배 7:3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월-토)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예배 5:30(월-토)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미 : 7:20 PM 성령 66년 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분별지 않고 믿음은 새롭기 원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입니다(골 2: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4-6) 오전 11:00  
토요일 새벽기도회 2: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엘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CM(학원)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엘바인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중·고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5(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hind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9: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양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되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11:30 청년기도회: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b>\$100</b> No Tax</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b>\$100</b> No Tax</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b>\$100</b>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오리알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니 6개월 후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인과도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개신교 선교 인물사(1)

# 니콜라우스 루드빅 진젠도르프(1700-1760)

개신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현대 선교의 역사적 관점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오늘날의 선교전략 연구 및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자료는 양태철 목사(GMI,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선교팀장) 제공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니콜라우스 루드빅 진젠도르프(Nicolaus Ludwig Zinzendorf, 1700-1760)

근대 영적 각성운동과 현대 선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독일의 경건주의(Pietism: 소그룹 중심, 성경공부 중심, 성경생활 중심, 봉사 중심, 경건생활 중심, 선교중심의 경건운동)는 필립 스페너(Philip Spener, 1635-1705)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그의 제자인 아우구스트 프랑케(August Franke, 1663-1727)는 진젠도르프(Zinzendorf, 1700-1760)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아(Moravian) 선교회는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 1703-1758)와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에 의한 제1차 영적 각성 운동(1720-1776)과, 찰스 피니(Charles Finney, 1792-1875)와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가 중심이 된 제2차 영적 각성 운동(1795-1875)에 초석(礎石)이 되었다.

또한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

레(John Wesley, 1703-1791)와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에게 선교의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학생자원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VM, 1886)이 일어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Edinburgh)에서 열렸던 세계선교사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 WMC)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진젠도르프는 10세가 되던 해에 독일의 할레(Halle) 대학에 입학하여 17세까지 그곳에서 공부하였는데, 이때 경건주의의 대가인 프랑케(Franke)와 깊은 유대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진젠도르프의 경건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상인 순결한 교회와 순결한 영적 생활에 대한 뿌리가 내면에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19세 때인 1719년에 독일 뒤셀도르프(Duesseldorf)에서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Domenico Feti)가 그린 그림(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獻身)하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독일 베르텔스도르프(Berthelsdorf) 근처의 커다란 땅에, 진젠도르프는 1722년부터 300명이 넘는 종교적 난민들(후스를 따르던 모라비아와 보헤미아 지방의 보헤미안 형제단 소속의 크리스천들)의 정착을 허락했다. 이들의 거주지를 헤른후트(Hermhut)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주님의 보

호'라는 의미였다.

헤른후트에 세워진 공동체는 철저한 공동체 생활, 선한 사업들, 엄격한 도덕 그리고 근면함에서 수도원을 닮았다 (독일의 베를린(Berlin)에서부터 기차로 약 2시간 정도 남쪽에 위치한 드레스덴(Dresden)에서 내린 후, 다시 동쪽 방향으로 지역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가서 로우바(Loebau Sachsen)에서 내린 후, 헤른후트(Hermhut)까지 가는 지역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남쪽의 체코 국경 쪽으로 가면 된다 <www.hermhut.de 참조>).

필자는 모라비아 선교를 연구 차, 작년 영국 옥스퍼드 선교연구소에서 6개월 간 연구 중, 2013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독일 헤른후트를 방문하여, 선교 역사적 및 선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모라비아 선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모라비아 선교회는 평신도 전문인 자비량 선교의 대표적인 선교회로서, 이교도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의무라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최초의 개신교도들이다.

1900년 뉴욕에서 열린 초교파 선교대회에서 존 모트(John R. Mott)는 모라비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찬사(讚辭)를 보냈다. "모라비아인들은 해외 선교사역 가운데 선교지 현장에서 가장 놀라운 성취를 이룬 예이다. 그들은 지닌 능력에 비해서 다른 어떤 기독교 단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 당시 전체 개신교 선교사들과 교회 성도들과의 파송 비율이 1:5,000인 것에 비해, 모라비아인들은 1:60 이었다. 이는 그들의 전적인 헌신의 강도를 알 수가 있는 좋은 예이다.



은 예이다.

이러한 모라비아 선교 공동체는 철야 기도의 모임 가운데, 1727년 8월 13일 오순절 성령강림과 같은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모라비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1728년 1월부터 세계 선교를 위한 100년간의 연속 기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중보기도에 힘입어, 1732년부터 모라비아 평신도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들을 서 인도(West Indies)와 그린란드(Greenland)의 이누이트 인디언 Inuit Indian) 등에게 파송하게 되었다.

일례로, 1728년부터 진젠도르프가 소천하는 1760년까지 32년간, 14개국에 226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이는 1517년 개신교가 시작된 이후, 1792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았던 윌리엄 케리가 본격적인 현대선교를 인도에서 시작하기까지 275년 동안, 개신교 전체가 파송했던 선교사의 숫자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1930년대 말까지 약 3,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필자는 현대 교회의 선교를, 모라비아 선교와 선교 역사적 관점에 근거하여,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영적인 지도자의 선교에 헌신을 들 수 있다. 진젠도르프라는 모라비아인들의 영적인 지도

자의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 둘째, 모라비아 선교의 동력은 세계 선교를 위한 100년간의 중보기도에 있었다. 셋째, 모라비아 선교는 선교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반면에, 모라비아 선교사들의 전문인 자비량 선교의 측면과 선교지 현지인들과의 동일화(identification, assimilation)와 문화적응(cultural accommodation, adoption)과 현지화(indigenesness, localization)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선교사들이 더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모라비아 선교가 세계 선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 같이, 현대 교회의 선교 역시 다른 수많은 교회들에게 선교의 동기 부여 및 선교 전략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다음세대가 이러한 선교의 헌신을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되길 기도한다. 또한, 진젠도르프 (1727년에 감동적

안수 받음)와 같은 기도의 종, 선교의 종, 헌신의 종이 계속 나오게 되길 기도한다. 양태철 목사 GMI 선교팀장



양태철 목사 GMI 선교팀장

## 로제타 홀 선교사와 그가 남긴 일기 6권 '전시도록' 형태로 일기 1권 출간



로제타 홀 선교사

주실 것을 믿는다(1890년 9월 19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광대한 바다에 나와 함께 계시니, 저 낯선 땅에서도 함께해

일." 홀 여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의사인 박에스터를 길러냈고, 여성을 위한 의학전문교육기관을 설립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녀는 평생 한국인, 특히 한국 여성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양화진홀에서는 로제타 홀 출생 150주년과 내한 125주년을 기념해, 4권의 일기(1890-1894)와 2권

의 육아일기(1893-1902)를 최초로 공개 전시하고 있다. 또 두루마리로 된 기행편지, 내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수첩, 평소 묵상하며 읽었던 성경도 함께 전시 중이다.

홀 여사는 고향집을 떠났던 1890년 8월 21일부터 남편 윌리엄 홀이 소천한 1894년 11월 24일까지의 상황을 네 권의 일기에 담았다. 1권에는 고향을 떠나 중간 기착지인 일본에 도착하기까지, 2권에는 일본에서의 여정과 한국 도착까지, 3·4권에서는 2년간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특히 두루마리 기행편지는 폭 17cm의 한지 34매를 이어 붙여 두

루마리 형태로 만들었으며, 그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세아니아로 승선한 1890년 9월 4일부터 서울에 들어오기까지 40일간의 여정을 기록했다. 14개 장으로 구성된 기행편지 첫 장의 제목은 'Toward the Setting Sun(해가 지는 곳을 향하여)', 마지막 장의 제목은 'In Korea(한국에서)'이다.

이번에 출간된 <로제타 홀 일기 1>은 로제타 홀 선교사의 일기 6권 중 첫 1권으로, 그녀의 초기 사역을 고증하고 증언하는 자료이며, 부분적 편지가 아니라 일기 전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발간됐다.

독자들이 로제타가 기록한 일기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도록과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했으며, 그 내용을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의 번역을 아랫단에 위치시켰다. 보조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주석을 달았으며, 영문으로 기록된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사료이기에 별도로 뒤에 인쇄체로 옮겼다. 마지막에는 시대적 배경이나 다양한 설명을 담은 해설을 배치했다.

양화진문화원 박희식 원장은 이 일기를 읽고 보는 이마다 한 세기 전 그녀가 삶으로 보여줬던 신앙을 있는 그대로 재발견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대용 기자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9월 18일 까지 등록 마감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omax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 한국내 이슬람 성장에 따른 교회에 대한 제언

현재 세계 이슬람 인구 약 16억, 2030년에는 약 22억 예상

세계 이슬람 인구 매년 2천만 명, 매일 6만 명씩 증가

현재 한국내 이슬람 인구 약 25만(비공식 약 40만), 2050년 약 400만 예상, 이슬람교가 개신교 앞지를듯

마틴 루터 이슬람의 위협,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이다. 우드베리(J. Dudley Woodberry)의 연구에 의하면, 이슬람 인구는 1930년 2억 3백만 명이었으나 오늘날은 약 16억, 그리고 2030년이 되면 22억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통계에 의하면 이슬람은 매년 2천만 명씩, 그리고 매일 약 6만 명 이상 성장한다.

한국에도 이슬람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1970년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불과 3,700명이었다. 198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문에 한국의 이슬람화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된 이후에, 이슬람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25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40만 명이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안에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1백만 명에 육박한다. 2050년 한국 이슬람 인구는 공식적으로 400만 명이 되고, 개신교는 이슬람 다음의 종교가 될 것으로 본다.

이슬람이 시작되기 전 약 4세기 동안,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전 국민의 95%가 교회에 출석하는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였으나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 되었다.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시작된 곳이지만, 지금은 이슬람화되어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50년만 해도 인구의 85%가 교회에 출석했으나, 현재는 평균 3%만이 출석하고, 이슬람 인구는 공식적으로 약 3백만, 비공식적으로 약 550만 명이다.

### 1. 유럽인들의 이슬람으로의 개종 이유

영국은 매년 약 1만 명씩, 프랑스는 약 4천 명씩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들 중 80% 이상이 기존에 교회에 출석하던 기독교인이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영어로는 그들을 Back Sliding Christian이라고 부른다. 2013년 5월에 영국의 수도 런던의 부대로 들어가는 영국 군인이 거리에서 참수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영국 군인 리비(Lee Rigby)를 죽였던 마이클 아데볼라오(Michael

Adebolajo)는 2001년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인물이며, 또한 마이클 아데바웨일(Michael Adebowale)도 2005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은 영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서, 나이지리아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에 나가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첫째, 이슬람은 자신들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우정을 가지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이슬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들은 담대하게 거절한다. 또한 이슬람 가정은 자녀들이 타락한 유럽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꾸란을 암송시킨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이맘(imom)을 초대하여 1주일에 1번씩 25파운드(한화 약 4만 원)를 주고 꾸란 과외를 시킨다.

둘째, 이슬람은 교리가 단순해서 이해하기가 쉽다. 기독교에 비하여 그 가르침이 단순하고, 의무는 감당하기 쉬운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교리(성육신,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 삼위일체, 원죄 등)처럼 어려운 내용이 없으며,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합리적으로 나타난다. 이슬람을 믿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 다음에 나타난 종교로서, 3대 종교 중에 정점을 이루고 있다.

셋째,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다. 유럽의 많은 가정들이 점차 전통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한부모가정이 2백만 가정이나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한부모가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형제애를,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서로의 문화를 확인하고 결속시킨다. 기도 시간이나 순례 기간 동안에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이 연합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표면적으로나마 보이는 것이다. 슬프게도 이런 형제애가 서구 교회에서는 막혀 있다.

### 2.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

첫째,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최근에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이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는 기독교인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다니다가 나가게 된 이들이다. 최근에 '가나안 성도'들이 1백만 명을 넘었다는 발표도 있다.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2015년 1월 크리스천투데이(한국)이 보도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둔 이유는 '성도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40%), '목회자에 대한 실망'(35%), '헌금에 대한 부담'(14%) 등이었다. 가나안 성도가 늘어가는 원인은 이세 가지가 약 9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성직자 제도가 없다. 무슬림 인구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는 시아파에 이맘이라는 성직자가 있으나, 그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또한 이슬람에는 헌금이 없다. 다만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구제(자카트, Zakat)가 있다. 이는 자기 수입의 2.5%를 떼어서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또한 강제성이 없기에 자유롭다. 이슬람에서의 예배는 어디에서나 하루에 5번씩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기에, 꼭 이슬람 사원에 가야한다는 부담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라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슬람은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담이 없는 이슬람으로 개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목회사회학연구소가 지난 2월 가나안 성도 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가능한 빨리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응답자는 13.8%,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응답도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성도 중 67.1%가 좋은 교회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기독교는 교회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다문화 시대에 맞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한국에서 다문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새터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결혼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는 2012년 220,68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외 한국 국적 취득자도 2012년 47,040명이다. 다문화자녀들 또한 약 2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결혼하는 인구의

10쌍 중 한 쌍이 외국인교 한다. 다문화가정 초·중·고생도 8년 만에 7배 늘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한국교회에 기회 혹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교회가 흑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보임으로써, 흑인들은 기독교 대신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이러한 과거 영국교회의 태도는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2012년 한국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 5천여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41.3%에 달했다. 한국의 인종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예수님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적이 없으시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세 차례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실 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경멸했으며,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고 결코 그들과 접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셨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9)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 신앙전승율을 높여야 한다.

신앙 전승율이란 부모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불교의 신앙 전승율은 97%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신앙 전승율은 아버지 혼자 믿으면 57%, 어머니 혼자 믿으면 70%에 불과하다. 반면에 이슬람의 신앙 전승율은 100%에 가깝다. 영국 타임지에 의하면 영국의 무슬림 사라(Sara Ege)는 7살 아들이 꾸란을 암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때려서 죽인 일이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무슬림들이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꾸란을 암송시키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주일학교에 전념하여야 한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주일학교 규모는 장년 교인의 2-3배였으나, 30%밖에 안된다. 그마저도 10년마다 30%씩 줄고 있기에, 이대로 30-4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 전체 주일학교 규모는 30-4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장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처음 교회에 나갈 때가 주일학

교라고 대답한 교인이 80%였다. 따라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여 신앙 전승율을 높여야 한다.

넷째, 이슬람을 선교해야 한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진리를 찾고자 방황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시 비잔틴 기독교 제국은 아라비아 반도에 선교사를 파송한 흔적이 없다.

무함마드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가 올바른 기독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게 된다. 서구도 기독교가 부흥하였으나, 이슬람에 대한 심리적 원수 상태로 인하여 중동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한 흔적이 거의 없다.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무엘 즈머(Samuel Zwemer, 1867-1952)는 무슬림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40년 동안 20여 명의 개종자를 얻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930년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2억 3백만 명일 때,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28명에 불과했다. 기독교 중심이었던 서구는 이슬람에 대한 심리적 원수관계로 인하여 이슬람 선교를 외면하였다. 따라서 전 세계 무슬림들의 80%는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슬람을 향해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는 선교가 필요하다.

이슬람에 대한 연구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마틴 루터는 이슬람의 위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사람들에게 촉구하였다. 그는 1526-29년 어간에 쓴 글을 통해 "이슬람은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듯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고...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이 회개와 눈물과 기도로 싸워야 할, 하나님의 책재와 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십자군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쟁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발전하고 융성했던 곳들이 이슬람으로 대체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한국에도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적 욕구를 채워 주지 못하고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이슬람이 몰려왔고, 그에 대항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권을 이슬람에게 내어 주고 말았다.

순전한 복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대를 읽지 못하는 교회는 문을 닫고 만다. 한국기독교는 초대교회의 원시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 장수한의원

# 축 확장 이 전!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내과**: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부인과**: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정신과**: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환

**한방소아과**: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방 및 보약    **기타**: 비만치료

**이런분께....**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 ▶본인은 고등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템플러

마이클 해그 | 책과함께 | 5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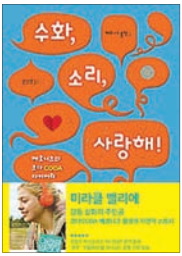
성전기사단은 1119년 이슬람에게서 성지 예루살렘을 수호하고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 부유하고 막강한 조직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2000년 후 신성모독과 이단, 난교 같은 혐의를 쓰고, 결국 화형당했다. 그러나 2001년, 성전기사단이 받은 이단 혐의가 무죄라는 사실이 교황청에 의해 드러난다. 후일담과 오늘날 문화에 나타난 성전기사단의 이미지들도 만나볼 수 있다.



#### 수화, 소리, 사랑해

베로니크 폴랭 | 한울림스페셜 | 160쪽

출판사의 '장애공감 1318 시리즈' 열네 번째 책. 작가가 주인공인 '들을 수 있는' 저자가, '들을 수 없는' 부모와 함께했던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는 자전 소설이다. '코다(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줄임말로,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를 뜻한다. 침묵의 세계에 살면서, 소리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단편들을 솔직하게 그려냈다. 프랑스에서는 영화로도 제작됐다.



#### 나이들이 고맙다

김동길 | 두란노 | 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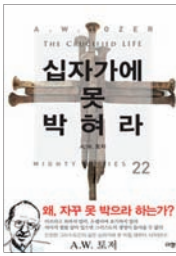
지혜의 어른 김동길 박사가 들려주는 나이들의 통찰. 대학에서 오랫동안 젊은이들을 가르친 김동길 박사는 여전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의 핵심 과목은 본질적인 삶의 영역이다. 이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배우고 체득해 나가며 얻은 결과물이다. 그 속에서 깨달은 나이들과 삶의 지혜를 이 책에 옮겨 적었다.



####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 토저 | 규장 | 336쪽

아프다고 피하지 말라,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라. 자아가 펴질 살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하라.



##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하나님 은혜가 큼니다

## 오늘을 살아내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무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저 푸른 초원에 예쁜 집을 짓고 골프나 치면서 유유자적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물질이 많으면, 지식과 명예, 권력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만 결국 폭풍같이 밀려드는 허무함을 경험한다.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오늘을 만족하라>의 저자도 그랬

다. 한국 정치계를 주무르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야심 차게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결국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가난한 유학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불교 가정에서 자랐기에 가족마저 등을 돌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는 만족함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에 감격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염려할까? 환란 많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단어는 마치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과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 안에 있는



오늘을 만족하라 한기홍 두란노 | 240쪽

행복의 비밀을 말한다. 털어 낼수록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전한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이 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감격의 회복을 기대하라! 저자는 사람을 향해 결코 '틀렸다고' 하는 법이 없다. 다만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한기홍 목사를 만나면 행복하고 따뜻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저자의 힘은 결코 재물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유학생에서 5천 성도의 멘토가 되기까지, 그는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는 비결을 이 책에 담았다.

신앙생활의 감동과 은혜를 잊었거나,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그럼에도 기쁨으로 오늘을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

저자 한기홍 목사는 1988년 미국 은혜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후, 1992년 갈보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70명이 모이던 교회를 1,000명이 넘는 샌디에이고 최대의 한인 교회로 성장시켰다. 2004년에 은혜한인교회 2대 담임목사로 추대돼 2015년 현재까지 섬기고 있다.

제64회 '미국을 위한 국가기도의 날'에는 한국 목사로는 처음으로 기도자로 초청되어 성경적 결혼의 정의와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일임을 선포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리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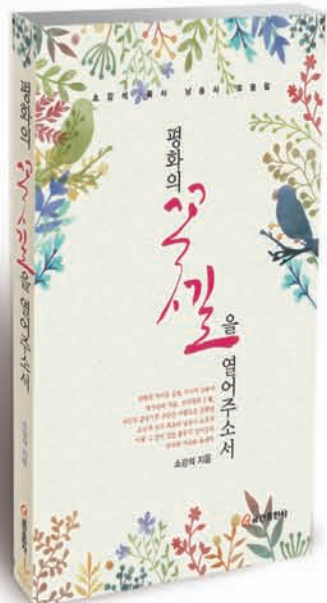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낭송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하늘(Heaven)들'

#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늘'을 파헤친 HEAVEN



HEAVEN Paula Gooder 144쪽

“악마는 우리 밑의 지옥에서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오죠(Devils don't come from the hell beneath us. They come from the sky).”

영화 <배트맨 vs 슈퍼맨>에 나오는 렉스 루터의 대사다. 이토록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늘'이라는 단어는 시적이면서도 신비하게 느껴진다. 영화나 음악에서도 하늘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신앙을 가진 인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어떤 곳인가? 저자 파울라 구더(Paula Gooder)는 하늘에 대한 성경적 묵상은 단순히 내세에 대한 희망뿐 아니라 일상에 찌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실제, 비전을 향해 나아가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을 시작한다.

우선 하늘이라는 용어에 있어 영어 성경 등에서 오는 번역으로 인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주지는 단수로, 그 외에는 복수로 번역하는 것이다. 사실 히브리 성경은 모두 복수만 사용하며(사마인, 히브리어에서 '-임'은 복수를 나타낸다), 이는 단계적 하늘이 있다기보다 '하늘의 거대함'을 드러낼 뿐이다.

또 '궁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키아'에서 온 것인데,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다만 고대 세계에서 이 궁창은, 혼돈의 물에서 세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 '라키아'는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병거(chariot)를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겔 1:22, 23, 25, 26; 10:1). 즉 궁창은 세상을 혼돈의 물에서 지켜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개념이다.

성경은 언제나 하늘과 '땅'을 묶어서 서술한다. 태초에도 하늘과 땅은 같이 창조되었고(창 1:1), 재창조의 묘사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은 동

시에 나타난다(계 21:1). 따라서 하늘은 땅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하늘은 그 자체로 신비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창조의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주는 인간에게 임한다. 그것이 하늘에 대한 믿음의 가장 경이로운 것 중 하나이다.

한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는, 실제 그분의 외적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는 메타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러한 메타포가 바로 성막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다(출 25:8-22). 그릇과 시온좌(혹은 속좌소, mercy seat) 사이에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임재를 드러낸다.

이 성막은 훗날 성소로 발전하는데, 솔로몬 성전은 남실-성소-지성소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뿐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단순히 위엄의 보좌일 뿐 아니라, 자비의 보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저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성경 이해 중 하나라는 논증을 곁가지로 전한다).

저자는 하늘의 존재인 천사들에 대해서도 다룬다. 아이러니하게도 천사에 대한 관심은 교회 밖에서(신학적 관심은 아닐지라도) 급증했지만, 교회 내에서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모두는 우리

에게 천사에 대해 생각하기를 도전한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천사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받들 찬양하며 그들의 날개로 하나님의 보좌를 받치는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messenger)이다.

하늘의 존재에는 구체적으로 그룹, 스랍, 생물(Hayot)이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수호천사, 여호와와 사자, 이름을 가진 천사 미카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정경이 아닌 외경의 우리엘과 라파엘, 나아가 타락천사와 에녹서의 메타트론까지 다루고 있다(천사의 종류와 천사가 거주하는 하늘 궁정에 대한 책의 설명 전체를 서평에 옮길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천사에 대한 믿음을 단순히 공상이라며 폐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소중한 유대-기독교 전통까지 버리는 것이다. 천사에 대한 관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천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제 저자는 하늘과 관련된 역동적 움직임을 다룬다. '하늘이 열림', '하늘로 들려 올려짐', '부활과 하늘',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하늘의 역할 등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들려 올려짐과 연결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경험인지 아닌지 밝혀내기 어렵지만 당대에 이런 이야기가 기이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제 내세와 하늘 간의 성경 서술을 다루고자 한다. 실제 독자들도 그 내용을 기다렸을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녀는 고대 히브리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과연 죽음과 부활 사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겪는가? 이는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에게도 신학적으로, 그리고 묵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물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7절에서 그들에 대한 소망의 말을 주었다. 이러한 중간 상태에 대한 제2성전 유대교 시대의 생각은 문헌마다 다르지만, 의인은 이미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공통된 관점이 있었다. 죽은 자는 잠시 거주하는 장소가 있으며, 그들은 부활할 것이고, 그 이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에녹1서, 제4 에스트라서 참조). 신약도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의 부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인지했고,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를 통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존 던롭 지음 | 정성목 옮김 생명의말씀사 | 288쪽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양질의 노년의 삶뿐 아니라 최근 <어떻게 죽을 것인가> 같은 웰다잉(Well-Dying)을 말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점차 좋은 인생 마무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의 말처럼 결승선(피니시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크리스천들에게 웰피니싱(Well-Finishing)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실제적인 노년과 삶의 마무리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적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복음의 관점으로 노년을 어떻게 바라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나? 예수 믿으면 부자되나?

보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실한 크리스천이자 노인의학에 관련된 의술을 펼친 의사인 저자는 수많은 환자들을 봐오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죽음을 앞두고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수많은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적인 질문과 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 깊은 묵상에서 나온 성경 구절 인용과 기도를 돕는 기도문, 묵상을 통해 삶이 예배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복음 안에서 노년의 유익과 기회를 즐기는 법/노년의 상실들을 직시하고 대처하는 법/이후의 영원한 삶을 고대하는 법/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법/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느려진 죽음에 준비하는 법/의학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편안하고 인간적인 마지막을 맞는 법/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법 등.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까에 대한 질문은,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 답을 내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꼴을 맞이하기 원한다. 그렇게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크리스천다운 인생 마무리는 무엇인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탁월한 지혜와 전략을 알려 준다.

⇒ 일어났음을 강조하며, 죽음을 불안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며 글을 맺는다.

이 책의 장점은 논문에 준하는 아카데미한 내용을 현대 문학에서 고대 사상까지 종합하면서 쉽게 풀어간다는 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은 이제는 매우 익숙한 공간이 됐다. 비행기를 타고 길로 활용하고, 천체 관측을 통해 이제 땅에서부터 외기권(外氣圈) 이하에는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을 한 신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천체물리학의 발달로 지구와 닮은 골디락스 행성까지 발견하는 지금, 본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고대인의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고대인의 '하늘에

대한 신앙'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천사를 직접 만나거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경험을 하지 못할 지라도, 하늘에 대한 묵상은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욥 35:5)

저자 파울라 구더(Paula Gooder)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영국성서공회 소속 신학자이자, 킹스 칼리지 런던의 객원교수, 성 밀레투스 칼리지와 트리니티 칼리지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지은 다른 책으로는 「Where on Earth is Heaven?: A Little Book of Guidance」, 「This Risen Existence: The Spirit of Easter」 외 다수가 있다(가격: 9.99 파운드, 국내 미번역)

서평자·번역자 진규선 목사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인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입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대리점 모집**

#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세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을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세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세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적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갈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무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병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항산화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Tel: (323) 316-6815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 (로데오 갤러리아)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 제의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번역물인쇄 전문  
www.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세트 1,000set(\$180)  
고급형 실교서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선물용으로 구비되어 있으나 행사용으로 발송하시거나 다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 골든씰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너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탄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굵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 win HYUNDAI CARSON

### 원현대 칼슨

##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0% APR & No Payments For 90 Days

www.winhyundaicarson.com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 Persecutor Turned Evangelist Shares Testimony

*"If I can share  
the gospel,  
so can you"*

BY JOHN LEE

"You can do it -- you can share the gospel. Even someone like me can share the gospel. You all can do an even better job than me."

In-Tae Kim, a member of L.A. Full Gospel Church, shared these words at the evangelism seminar that took place at Love Korean Church on the evening of September 25.

He said evangelism is not something one does, but something one makes. Kim has shared the gospel to at least 500 people since he moved to Los Angeles in 2002. What is his secret?

"Pray a prayer of commitment right now, and commit to sharing the gospel to someone close to you. And do good unto them even to the extent that it forces you to sacrifice," said Kim.

"Don't tell them to believe in Jesus right away, but approach them first by eating with them. However long it takes, God is harvesting, so we just need to wait," he added.

Kim grew up in a Catholic family. Less than six months after marrying his wife, however, Kim began persecuting her, sometimes even hitting her and hurting her severely. He ripped pages of the Bible to smoke. But even on days that Kim came home late after drinking, his wife never ceased to pray early in the morning.

Perhaps due to his wife's prayers, Kim encountered the God who brought him out of the miry pit.

"One day I rejected my wife's desperate request to go to the prayer mountain together to go fishing instead. It was during the winter time. The ice underneath my feet suddenly broke, and I fell into the water. I desperately flailed my arms trying to live, but it was no use."

The more he would move and flail his body, the more the ice would break, he said. And it was at that moment, when the shadow of death loomed, that he met the Lord.

Kim said that he felt in just a fraction of a second, he saw his life flash before his eyes, and he thought, "I'm going to die," and felt most apologetic towards his wife. He remembered the seven times that he ripped up the Bible, and the countless moments when he persecuted those who believed in Jesus.

And in the depths of his soul, he cried out, "Jesus! Please just save me. If you save me, I'll bring back all of those people who left you because of the way I treated them." And as soon as he prayed this prayer, he said he felt a hand pushing him up out of the water. It was strange -- no one was there.

After landing out of the water, he kneeled. How long it was, he doesn't remember, but he says he wept and wept as he prayed.

This experience of God's grace completely changed his life. He became a passionate evangelist that cannot spend a day without sharing the gospel with someone.

"This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the place to share the gospel," Kim said to the audience at the seminar.

"Pray a prayer of commitment before the Lord right now. If even someone like me -- I'm not very eloquent -- can share the gospel, so can you," Kim continued.

"Have confidence in yourself that you can share the gospel, and don't be discouraged if you don't see fruit today."

Love Korean Church is holding an evangelism festival from September 13 to November 8, during which the entire congregation is focusing their efforts in sharing the gospel.



A group of Korean Americans gathered on Tuesday evening to pray for those who are struggling with mental illnesses in the community.

##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Korean Americans love their neighbors through intercession*

BY RACHAEL LEE

A pastor's ministry with teens in juvenile hall led to the birth of yet another ministry: a regular gathering of Christians to pray about various issues that affect the nation.

The meeting is calle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takes place on the last Tuesday of every month. September 29th was the second gathering.

"As I've been meeting people in juvenile hall, I was exposed to the numerous problems that are prevalent in our country," explained Pastor Keesong Lee, who is leading the prayer gatherings and is also a staff at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KCCC). "There are so many broken families, so much violence in our neighborhoods and communities. It made me realize that Christians must particularly be healthy in this broken world. And it made me think, we can't meet all of the broken people in our communities, but we can pray for these issues."

Hence, Lee has been focusing on one specific issue at each gathering thus far. The first gathering was focused on addictions, and the second was focused on depression and mental illnesses. The third gathering will focus on stress, and will take place on October 27.

So far, the gathering is an intimate one of Korean American young adults who know Lee and share his heart to pray for the country. But anyone is invited to join, Lee says.

"However many show up, we just want to focus on being sincere in our prayers," Lee said.

Experts on the issues have also been invited to the gatherings to speak, particularly on how faith relates to resolving or alleviating those problems. For example, Myong-Hee Lee from Korean American Counseling Center was invited during the second gathering to speak on types and symptoms of such mental illnesses as depression and schizophrenia. She also spoke in depth on how people in the church can be a safe com-

munity for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these illnesses, and how they can be connected to resources to receive help.

"One of the most serious myths of mental illness in the church is that it's a sign of being spiritually weak," Myong-Hee Lee explained. "Though sometimes depression can come as a spiritual attack, we can't generalize to say that all mental illnesses are spiritual attacks. Most of the time, they are simply illnesses that need practical care."

Eventually, Keesong Lee also plans to spend time during the gatherings to pray for issues that affect Korea, and for those within North Korea.

Meanwhile, Lee has been reaching out to teenagers in juvenile hall for over one year by holding weekly Bible studies and hosting worship events. Though the juvenile hall ministry first began as an individual effort, it recently became integrated as an inner-city ministry of Korea Campus Crusad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keesong.lee@kcccla.com.

## Koreatown Calls for Community Center

BY RACHAEL LEE

A group of Koreatown community organizers is advocating for a 30,000 to 40,000 sq. ft. community center to be included in a proposal to redevelop three different areas along Vermont Avenue between 4th and 6th Streets.

The desired Koreatown Community Center would be located between 5th and 6th Streets.

"There are so many people in this city, but not enough parks and recreation centers," said Caroline Sim of Koreatown Arts and Recreation Center (K-ARC), a coalition of Korean American non-profits and community members.

"Having a community center at this location would provide a safe and nurturing space for the kids and families of Koreatown," said Joanne Kim, the development coordinator at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has currently already created a Request for Proposal (RFP), which detail the different aspects that they want to include in these three redevelopment sites.

So far, the RFP includes requests for retail stores, luxury apartments, and affordable senior



(From left to right: Caroline Sim (K-ARC), Grace Yoo (former KAC), Hun Choi (KCCD), Joanne Kim (KYCC), and Lois Arkin (Eco-Village)) Koreatown organizers held a press conference on Wednesday regarding the proposal for a Koreatown Community Center.

housing.

Organizers are advocating for a Koreatown Community Center to be included in that RFP, which can only be amended by a majority 3-2 vote by the Board of Supervisors.

The developers then make proposals according to the RFP and submit them to the Board. The Board then selects the most favorable proposal for redevelopment.

Developers are already working on these proposals which are due to be submitted to the Board by December 8th. Hence, making changes to the RFP "sooner is better," Sim said.

"One developer told me that even if they don't amend the RFP, but [the Board] expresses favor for the community center, he can include it in his proposal," she added.

Organizers attended Tuesday's Board of Supervisors' meeting, and will be gathering at the Board of Supervisors' meeting again on October 13th at 2:30 PM. They encouraged community members to join them at the meeting (500 W. Temple Blvd, Room 383).

Should the community center be included in RFP, the building process for the center would likely start in 2017.

## Unity in Christ Emphasized at HYM Worship

BY SHELBY MOON

HYM, also known as Here am I Young Christian Movement, held its 33rd worship gathering at Anaheim Sarang Community Church's Kingdom Dream Center.

The theme was "One Body in Christ (Eph. 4:1-16)," and took place from September 26 to 27, with Reverend Sung-Hwan Kim from Gardena Presbyterian Church and Reverend Chang-Soo Noh from Sarang Community Church as the main speakers. Grace Paek, the co-director of Global Coffee Break Ministries, also led a seminar.

"We must become united as one body in order to fulfill the calling that God has entrusted to us," said Douglas Kim, HYM's president. "Let us keep pressing on to become a body that loves one another and prays for each other, that the countless amount of people in this country would be able to receive Jesus Christ and have eternal life."

"I pray and hope that a cloud of strong soldiers for Jesus will rise up, as they become one in their faith in Jesus, and live in this world with the heart of Jesus," said Reverend Noh.

"More than capable young

Christians, we need young Christians with depth," said Reverend Kim. "Let's pray that our true worth will be restored, and that we will adjust our lives according to that worth."

HYM's name comes from Isaiah 6:8, in which Isaiah responds to God's call by saying, "Here am I." HYM is a prayer movement of "1.5 generation" Koreans that began with the dream of bringing a revival of young people.

It holds two major worship gatherings each year, and holds weekly prayer meetings at 8 PM on Tuesdays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s World Prayer Center.

## What's Happening in SoCal?

*Upcoming events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October 1:** Los Angeles Church Planting Movement (LACPM) will be hosting a gathering with the theme, "Not Ashamed of the Gospel," featuring Reverend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as the main speaker. The gathering will be an opportunity for pastors and leaders to network and share how God has been moving in their respective places. From 11 AM to 1 PM at Eagle Rock Baptist Church (1499 Colorado Blvd, LA, CA 90041). The event is free, but RSVP is required. RSVP by emailing the organizers at rdoucette@stadia.cc.

**October 4:**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will be hosting the last 'Wailing Prayer Meeting' for this year. The prayer meeting, which will be in Korean, is one that has taken place on a regular basis since 2004, and focuses on praying on behalf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is year in particular, organizers are emphasizing the need to pray for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event will begin at 4 PM at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333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5).

**October 7:** LACPM and Stadia, another church planting movement, will be hosting a networking lunch and workshop called "Together for the City" on October 7 as part of Stadia's Exponential Conference. The workshop will discuss what has been happening in Los Angeles thus far in terms of church planting, what is and isn't working, pitfalls to avoid, and ways to join the movement. Lunch starts at 11:45 AM, and the workshop will run from 1 to 2 PM, both at the Life Development Building Room 204 at Mariner's Church (5001 Newport Coast Dr., Irvine California 92603). Register at [www.eventbrite.com/e/stadia-gatherings-exponential-west-2015-tickets-17007503902](http://www.eventbrite.com/e/stadia-gatherings-exponential-west-2015-tickets-17007503902).

**October 9:**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will be hosting a seminar called, "Raising Up Christian Leader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Era." Dr. Suzanne Scholte, the chairman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and president of the Defense Forum Foundation, will be featured as one of the speakers, alongside Reverend Hee Min Park, the former senior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and others. The seminar will discuss how young people can be built up and used for God's plan for Korea. From 8 PM to 10 PM at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October 17:**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KCM) will be hosting a "Gospel Renewal Night" featuring Reverend Harold Kim, the lead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s the main speaker. The event is an inter-campus event, and some 400 students are expected to attend. From 6 PM to approximately 9 PM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d, Brea, California, 92821).

A Korean worship event called Kingdom Dream Concert will also be taking place on October 17, with Reverend Kwan-Woong Cheon, the senior pastor of New Sound Church in Seoul, and New Generation Worship, a Korean worship band. The "Kingdom Dream" movement began in Korea in 2011. Tens of thousands of people gather in the Kingdom Dream worship conferences that take place in seven different cities in Korea. The event in Los Angeles will take place at 2 PM at the Belasco Theater (1050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5).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